

벼멸구 도심 습격

“수백마리 집 들어와 깜짝 놀라”...광주 시민들 한밤 중 벌레잡기 대소동 이례적 늦더위에 아파트·상가 등 불빛 쫓아 날아와...자치구 방역 비상

“모기나 파리도 아닌 벌레가 방충망을 뒤덮고, 집 안에 들어와 잡는데 애를 먹어요.”

올해 이례적인 늦더위로 인해 농촌의 불청객인 멸구류가 광주 도심에 몰려들어 지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최근 광주 지역 주민들의 멸구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는 집 안으로 멸구류 수백 마리가 들어와 깜짝 놀랐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사는 A씨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지내던 중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온 정체를 모를까만 벌레들로 당황했다.

한 시간 가량 문을 열고 있는 동안 느슨해진 방충망 사이로 쉴 수 없이 많은 벌레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살충제를 뿌렸으나 잘 죽지 않아 한밤 중 벌레잡기에 진땀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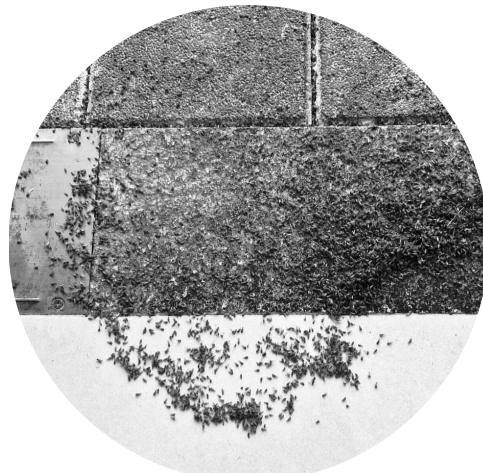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사는 B씨도 시원한 밤공기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방충망 물구멍과 틈새를 다 막았지만 불빛을 따라 방충망에 달라붙은 탓에 창문을 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B씨는 살충제를 뿌려보고 모기향도 피워봤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은 창문을 닫은 채 지내고 있다.

올 여름 광주·전남에 늦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충인 멸구류가 도심에서 기승을 부리는 등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일 광주일보가 전남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연구소 등에 지역민들이 올린 해충 사진을 의뢰한 결과 ‘멸구류’라는 답변을 받았다.

멸구류는 6월 중순께 저기압을 통과해 중국에서 날아와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는 56종이 살고 있으며 머리가 좁고 좋아리 마디 끝부분에 돌기가 있다.

통상 멸구류는 8월에 성충이 알을 낳고 변태를



불빛을 보고 광주시 한 가정집 안으로 들어온 멸구류의 사체. <SNS 갈무리>

한차례 반복한 뒤 9월 이전에 사라지지만 올해는 무더위로 6월에 1세대, 8월에 2세대를 거쳐 9월에 3세대까지 알을 낳고 나오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통상 9-10월에 보이지 않던 멸구류가 뒤늦게 번식해 농촌에서는 벼 줄기 하단의 즙을 빨아먹는 피해를 낳고, 빛을 쫓는 특성상 도심으로까지 몰려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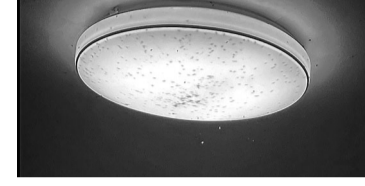
아파트나 주택 뿐 아니라 상가까지 멸구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

때 아닌 방역전쟁

혹시 운암동 날파리로 피해 보시는 가정 집 있으신가요??

방금 집 들어가서 처음으로 볼 커봤는데 방 하나 빼고 방 두 개랑 거실 전체가 날 파리로 뒤 덮여있고 방충망이랑 다 단치고

음식을 쓰레기도 다 치워봤는데 담이 안나올정도로 많이 있네요... 내일 세스코를 불려야하나요?? 사진에 지기 전등 하나에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광주지역 맘카페에 멸구류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과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

벼멸구 너무 싫어요 ㅠㅠㅠ

요즘 농가에 벼멸구 피해 심하디디니 광주까지 날려내요

방충기 시원해서 창문 열고 싶는데 이놈들밖에 없지도 못하고... ㅠㅠ

아침마다 베란다에 벌레 사체 치우는게 일이에요 미세 방충망으로 교체하든지 해야겠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3차례 하수구와 길가에서 때 아닌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 농업기술원 친환경 농업연구소 관계자는 “멸구류는 집단으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고 불빛만 보면 달라붙기 때문에 한번에 모여드는 양이 많다”며 “자치구 차원에서 방제량과 횟수를 늘리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 멸구류의 번식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멸구류 서식 온도는 25도~28도인데, 가을철 기온이 떨어지면서 3세대 부화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도심에서도 점차 모습을 감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불구속 기소

안 의원 “각본에 의한 악의적 기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안 의원의 사촌동생인 A(구속)씨와 선거사무소 종사자 1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안 의원이 사촌동생 A씨와 공모해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 등 선거사무소 종사자 10명과 공모해 자동으로 한 번에 20명을 초과해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총 5만1346건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을 담당할 경

선운동 관계인 10명에게 대가로 총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안 의원이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자금 4300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안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지인으로부터 광주시 동구와 남구 주민 431명의 성명·주소·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의원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이 악의적이고 짜놓은 각본에 의해 기소를 했다”면서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356주년 개천절 개천대제 봉행 3일 오전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 공연장에서 4356주년 개천절 경축 개천대제가 봉행됐다. 제관들이 제를 올리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금은방 유리창 깨고 귀금속 절도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특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여·2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장을 깨고 5600여만원 상당의 금팔찌·금반지 등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은방 유리창을 간판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진열장에서 귀금속 71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

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후드티와 바지도 같이 입고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시 옷을 갈아입었던 장소로 돌아와 원피스로 바꿔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훔친 귀금속을 모두 되돌려 줬지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보험금 타낸 20대 송치

골목에서 차량에 고의로 신체일부를 부딪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교통조사과는 사기 등의 혐의로 A(2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목포와 인천 등지의 이면도로에서 승용차 사이드 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해 운전자나 보험회사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00만원 상당의 개인 간

채무와 사금융권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만큼 범죄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2021년 35건에서 2022년 109건으로 늘고 지난해에는 133건으로 증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